

투데이칼럼

부안오복마실축제, 전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각인'

'어 화 세상 벗넌네야, 복반 으러 마실가제!'를 주제로 펼쳐진 '2018 부안오복마실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대표축제로 각인 되었다.

"2018 부안오복마실축제"를 전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자리 잡기 최연연과장을 비롯하여 마실 축제 T/F 팀은 물론 700여 전 직원들이 땀을 뚝뚝 흘려낸 결과로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그간 고생 많았다고 박수를 보낸다.

이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축제장 주 메인무대 동선으로 연결 접근성이 쉽게 확보하는 한편 그늘막과 원탁의자를 작년 한 개 마당에서 오복마당 전체로 확대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실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난해 축제보다도 완벽하게 치러 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양한 불거리 제공과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야간에 오복을 테마로 한 시가지에 토끼어리 경관 조형터널 등을 설치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옥 수
지방부 부안주제 국장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유망축제 진입을 위한 10대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이 입증됐다.

주행사장인 부안을 서부터널 메인무대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예술 축제, 전시·판매 및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에 방문객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산·물·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부안군 13개 읍면별 특색을 살리고 '부래만복(扶來

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는다)'의 고장 부안의 오복을 표현한 '복 받는 날 퍼레이드'가 최고의 불거리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기에서 부안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인 수성당 개량 할미에 관한 설화를 주제로 한 '옛! 오복 받아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위도피맷돌이 재현은 부안의 옛 전통문화를 부안 거리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개막축하공연', '마실 열린 음악회', '오색워터 Fun Fun마당', '따로 또 같이 플레이'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인 400여 명이 부안을 찾아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다.

13개 읍·면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복받는 날 퍼레이드, 오색워터 Fun Fun마당, 위도피맷돌이, 오복마실 운동회, 결혼식 때 한복입고 대동 한마당 등 대표 프로그램은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불거리로 치러졌다.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축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우러져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질적 수준과 성장속도를 고려해가며 조화롭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90여 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국의 어느 축제보다 성공적으로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창학 축제팀장의 노고에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보낸다.

사설

지역발전 발굴사업들의 행방

지역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 뿐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 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지역발전을 목표로 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라는 게 그 자체로 끝난다면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을 해서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한다.

전북도의 사업 발굴을 책임자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매년 예산이 기대박인데 기일중 노력해달라는 당부이다.

전북도가 여러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

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의 당위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지역 발전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게도에 올려놓으려면 전북도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다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이 세워졌으면 성취를 위해 힘찬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걸 위해서 관계자들은 얼마나 힘썼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는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구체적 추진을 위해 합작해 뛰어라야겠다.

청년 인구의 감소 고민해야

전북도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 숙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의 대상은 청년 인구의 감소이다. 정말이지 청년 인구 감소의 현실이 심각하다. 전북도는 청년 인구의 탈출 리시와 관련해 생각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매년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어선 곤란하다. 말로만 애쓰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방안을 찾기 위해서 궁구해야 한다.

청년 인구의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구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서 구해보려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도 청년 인구가 대폭 감소되리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탈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으니 우리 지역이 웬만한 고장이 아니라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 관

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분발해야겠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가 훨씬 더 절실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다. 젊은이의 탈출 리시를 보고서도 뾰족한 대책도 없이 세월만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는 청년 고용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겠다. 답답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도내 젊은이들을 붙잡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고용 환경도 좋아야 한다. 도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딱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여야 한다. 비정규 일자리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다. 전북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야만 한다.

독자제언

5월 봄나들이 휴가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

5월은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꽃이 피는 계절로 이에 만약 사람들이 휴가나 여행을 가는 계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이때에 자동차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2016년 차량 결함 304건의 교통사고 중 167건(55%)가 타이어 사고로 간단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예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 내고 있다.

이러한 타이어 사고의 원인은 크게 타이어의 마모, 제품의 불량, 사용자의 관리 미숙으로 나눌 수 있다.

타이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로 타이어 마모 확인을 해야 한다. 마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타이어의 틈 부분에 100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하여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갑옷부분이 모두 가려져야 정상적인 타이어이며 혹시 갑옷부분이 전부 가려지지 않을 시 타이어를 점검해봐야

한다. 두번째로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경우 타이어의 편마모를 일으켜 타이어의 수명이 짧아 질 수 있으므로 점검해 봐야한다. 만약 주행 시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핸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며, 최근 승차감이나 연비가 떨어진 경우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것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정비소에서 가서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한다.

세번째로는 가까운 정비소나 주유소에서 1~2달에 1번 정도 적정 공기압을 체크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을 항상 체크하여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와 같은 주기적인 타이어 점검만으로 타이어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5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에서 점검 미흡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 점검을 항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호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장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말레이시아 총선 D-1



말레이시아 총선이 9일 치러진다. 사진은 7일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붙어있는 나질 라자 총리의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 지지 호소 포스터.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